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 첫 문장에서 말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 우선, 독점적 경쟁 시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광고와 연관을 지을 것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 광고의 목적 :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 선호
 - 목적은 어느 제재의 지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문 원문에서 개념에 '목적'이라는 위임을 적으면서 큰 틀을 타 주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광고의 효과 : 독점적 지위 강화

1문단은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2문단을 들어갈 때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주의하면서 독해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비교 대상
- 단기 : 이윤
- 장기 : 신규 판매자 ↑ → 구매자의 수요 ↓ → 판매자의 이윤 ↓
- 그냥 비교 대상만 처리하고 싶으면 아니다. 2문단 시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을 보고 "왜 수요를 고려해야 하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를 연결하고 싶어야 한다.
- 설문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굳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도, 거시적 독점적 지위까지 확장을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면 된다.
- 과거 이 부분에서 간과한 점은 "신규 판매자"의 유입이다. 신규 판매자가 들어와서, 기존 판매자의 수요를 통해서 판매자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즉, 판매자는 항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1~2문단의 연결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1문단은 앞서 말했듯,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광고의 설명이다. 2문단으로 들어가며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구체화했다. '독점적 지위'를 끌고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지를 통해 지문의 주제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위딩을 통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뒤집혔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고, "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지?"라는 주제를 끌고 독해해서 마지막에 이에 대한 답안을 얻어야 했다. 9평에서는 오답 선지가 너무 명확해서 정답 선지를 잘 골랐겠지만, 수능에서는 이와 같은 연결을 요구하는 선지가 출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 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독점적 지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주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왜 고려해야 하는지 알도록 처리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에 주목해야 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당 문장은 살짝 범주가 바뀌는 지점이다. 문단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효과를 위해 이야기 했다. 이 문장을 이루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판매자가 광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다. 즉 연결해도 좋고, 세번치로 범주 바꿔줘도 해도 좋다. 흐름을 잘 타면서 독해하자.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은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 독립성 : 물량(↓) →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 판매자 : 공급량(↓) → 책정 가격(↑)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인 상황이다. 아직 우리가 처리해야 할 "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 '그나마'라는 문장을 통해, 일반적인 상황이 뒤집히려 "왜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지?"에 대한 답이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
- 1) 정보 전달
- 2)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 독립성 : 차별화 노력(↑) → 가격 탄력성(↓) = 충성도(↑) → 독점적 지위(↑)
- 가격 탄력성은 수급사이에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됐는지? 앞선 문단에서 판매자가 광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를 파악했다면 더 쉽게 연결했겠지만, 시험장에서 그러한 연결까지는 못 할 수 있다.

적어도, 방법에 두 가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에 주목하는 것 같고, 증감정인 처리하고, 가격 탄력성 개념을 이해했다면 충분하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 이렇게 하는 위장은 일선 문항과의 연결을 유도한다. 경쟁을 제한 = 독점적 지위 상승

때론 거를 보아도 문항 출제도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연결을 만들어 준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다시 봐도 지문의 흐름은 유기적이다. (가)지문에서는 1~2문단의 연결. 그리고 2문단에서 주제의 구체화 후 “광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1번”. 3문단에서 “광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2번”

일다시피, 잘 컷은, 못 컷은, 시험은 끝났고, 여기서 발전하고 싶은 학생은 6평에서 그랬듯이 시험지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뽑아 먹어야 한다. 그럴 기회가 마지막이다. 우리는 수능에서 “난이도 탄력성”을 좀 낮추어 보자^^ 난이도가 어려워 든 점수대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해 보자~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가), (나) 지문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광고주의 의도는? 비록 위에서 본 독점적 지위의 강화이다.

→ 두에서는 시장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까? 에 대한 답이 나오면 처리해야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 영향 1) :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 “가격에 예민”, “가격에 민감”이라는 위장을 보고, 글에서 본 “가격 탄력성”을 떠올렸다면 아주 잘 했다. 가격에 예민하게 변한다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주의 의도와 반대되는 지점이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광고주의 의도는 독점적 지위의 강화였는데,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 또한, 첫 번째 영향인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면, 상품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도 유려해야 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영향 2) :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 = 광고가 욕구 환기 → 소비 촉진 → 경제 선순환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 과정

① 소비 증가 → ② 생산 활동 자극 → ③ 고용이나 투자 증가 → ④ 구매자 소득 증가 →

① 소비 증가 ……

→ 한계 소비 성향 : 소득 증가 정도 < 소비 증가 정도

별로 어렵지 않게 흐름을 타며 독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량도 많지 않고, 핵심 과정만 체크하며 처리하면 시간 단축도 더 잘 됐을 것이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역시 문제, 한계, 비판이 나오며 지문을 끝냈다. 아무리 요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내서 재밌긴 했지만 시험장에서는 “비판은 환경 오염” 하고 넘어갔으면 특별하게 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다.

앞으로, (가) 지문과 (나) 지문이 다른 지문이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자. 혹시 수능에서 (가)와 (나)의 유기적 연결을 요구한다면, 크게 당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문에서는 굳이 가격 탄력성을 연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 지장은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과한 요구도 아니다.) 연습하자.

-> 흐름 장악을 위한 장지문 연습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⑦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⑧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⑨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⑩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⑪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⑫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⑬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⑭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⑮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1.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 ②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흐름 장악을 위한 장지문 연습 + 더 많은 정보처리 요구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살이 쓴 『주제 군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살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등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全體新論)』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 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 한다는 흠손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손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살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흠손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살과 흠손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예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았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었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군.

1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들어오기
- ② ㉡ : 드러내었다
- ③ ㉢ : 퍼뜨리기
- ④ ㉣ : 실린
- ⑤ ㉤ : 가리지

-> 문단 간 연결 + 사회 지문의 흐름 장악 연습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 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능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 이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ㄱ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자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13.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2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3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4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5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14. ㄱ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1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2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3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4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5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①: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①②: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①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①②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1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2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3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4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5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겠군.

<정답>

511432

243325

544